

교회 목표

신앙의 예배
천국으로의 영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골로새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회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Ŏ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찬근

청지기 영성 세미나 은혜가운데 마쳐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잔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지난 주 11일(수)부터 13일(금)까지 본당에서 필라델피아 소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실천신학 교수로 재직중인 티모시(Timothy Z. Witter) 교수를 강사로 초청하여 청지기 영성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충현의 모든 구역장 및 일꾼들의 영성 훈련을 위해 마련된 시간으로, '주의 잔에 동참해 하소서'라는 주제로 성경에 나타난 '잔'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다.

첫날에는 '주의 잔의 의미'와 '당신의 잔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라는 주제를 통해서 잔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잔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멸망과 수치를 의미하는 잔이고, 두 번째는 축복과 생령, 그리고 구원과 평강을 의미하는 잔이라고 선포하였다. 또한 이 저주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마심으로 우리는 축복의 잔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구원의 은혜와, 만일 이 축복의 잔에 동참하지 않으면 저주의 잔을 받게 될 것이라는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전해 주었다.

둘째 날에는 '주의 잔을 나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애굽기 25장과 35장을 통해서 하나님

의 일제와 기술과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을 선포하였다. 광야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려고 강령하신 장소이고, 불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이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본명만 목적이 담겨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룬 성막을 만들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은사와 재능, 물질을 나누라고 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 역시 영원히 거룩한 영적인 성전을 짓고 있으며 시간과 물질, 그리고 재능의 헌신을 통해 아직도 저주의 잔을 들고 있는 이웃에게 축복의 잔을 나누어줌으로써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영적인 성전으로 지어지거야 할 것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였다.

마지막 날에는 '절반이 비었는가, 절반이 차 있는가'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만족할 것을 전하였는데, 참된 만족이란 자아의 욕구의 충족함이라기보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들로 인한 긍정적인 반응을 의미하는 것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은 롬1:20, 21과 출20:17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탐욕이라는 것이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주어진 것에 대한 선택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제시함으로써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축복의 잔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롬8:17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진정으로 참된 축복의 잔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지고 가는 참된 백성이 되길 바란다. '자녀인들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교역자 및 부장 이동

인사위원회는 교구와 대학 부를 설립 새로운 교역자와 부장을 임명하였다. 12교구에는 올레 총신대학교 종교교육학과를 졸업한 백병자 전도사, 10교구에는 현재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여교역자 과장직에 있는 김정현 전도사, 그리고 19교구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1학년생 수료하고 휴학후 현재 수리남 단기선교에 참가하고 있는 이수정 전도사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대학부에는 현재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1

학년에 재학중인 윤정훈 전도사가 청빙되었다. 부장 이동에 있어서는 정홍식 장로의 계속적인 지료가 필요함에 따라 대학부장직을 사임하고 신교의원회 위원직만 겸임기로 하였으며 이예과라 황만일 장로가 대학부 부장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최평환 장로는 유년부장으로 임명되었다.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이들이 헌신되고 능력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현의 모든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백병자 전도사



김정현 전도사



윤정훈 전도사



이수정 전도사

지난 주일 장로피택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

제2차 공동의회는 10월 29일(주일),

4부 예배 후에 후보자 피택을 위한 투표 실시

지난 주일 찬양예배 후에 본당에서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소집되었다. 이 회의에서 후보자 선출을 당회에 위임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5명의 후보자가 선정되었다. 피택자를 선출하기 위한 2차 공동의회는 10월29일(주일) 4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실시될 예정인데, 이 시간에 후보자 피택을 위한 투표가 실시될 것이다.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길 일꾼을 선출하는 중요한 일인만큼 모든 충현의 성도들은 후보자 투표를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길 바란다.

제33대 장로 후보자 명단



박찬섭

나이 48
교구 1
지역장
위원장/부
번호:1



이실호

나이 50
교구 6
지역장
초동부 부장
번호:2



조종한

나이 59
교구 12
지역장
장년2부 교사
번호:3



배춘식

나이 59
교구 13
지역장
청년1부 부장
초동부 부장
번호:4



김영달

나이 58
교구 2
지역장
가르침/영양대
종동부 교사
번호:5

기도로
미리 준비하시고
투표에 임하십시오

목양 칼럼

자연에 가 보았습니다

김영훈 (목사, 고동부 지도)

10월 3일 고동부 교사들과 함께 추계 야외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자연의 경치가 너무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도 도심 속에서 쉼의 심신이 많은 공기와 맑음으로 재충을 얻었습니다. 가을의 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찾습니다. 그곳에 가면 쉼을 얻으리라 기대를 하고 도시를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경말씀은 구원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에게서 함께 단속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롬 8:22)

자연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 자연은 실은 탄식하는 자연인 것입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탄식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의 매연과 수많은 공장과 음식점들의 하수 쓰레기를 등 인간으로부터 야기되어진 오염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도 생태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오염도 큰 오염이었지만 가장 위험한 큰 오염은 죄로 인한 오염이라는 것입니다.

가을입니다. 가을단풍을 보러 산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시원한 바다로 가십니까? 죄의 오염으로 선용하는 피조물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죄의 오염의 정화입니다. 산과 바다는 우리의 사명을 되새김질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2000년도 제5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10월 15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강인식 목사)	교육관 407호	세례관? (김병태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관? (이홍성 목사)	교육관 314호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10월 22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 세례식	(저녁 찬양예배, 본당)				
			유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움)				

BE FRUITFUL

(Matthew 21:42-44)

Jesus said to them, "Have you never read in the Scriptures?" "The stone the builders rejected has become the capstone; the Lord has done this, and it is marvelous in our eyes?"

Jesus asked the chief priests, Pharisees, and elders whether or not they had read their Bible, "Did you never read in the Scriptures, 'The stone which the builders rejected, This became the chief corner stone; This came about from the Lord, And it is marvelous in our eyes'" (v. 42)? He bombasted these high religious officials with this question by pointing out how they had thrown away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their lives in favor of other things. Have you read your Bible? Are you discarding the most important thing in your life only to pick-up material nonsense? God made available the most valuable thing for you through the Bible. Is it really wonderful for your eyes?

Jesus quoted this exact verse from Psalm 118:22-23. "The stone which the builders rejected has become the chief corner stone. This is the Lord's doing; it is marvelous in our eyes." Is this true? Do you believe it? People say they are believers but many don't really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precious cornerstone. This most important stone which is the Word of God they throw away. We're not just talking about servants of God, but also about officers of the church like you see in today's Bible verses.

Jesus led into today's message with the parable about the landowner and vine-growers. The landowner rented out his property to some vine-growers who refused to pay him his share. The vine-growers beat, stoned, and killed two groups of slaves that the landowner sent to collect his produce, "But afterward he sent his son to them, saying, 'They will respect my son'" (v. 37). Unfortunately, they killed his son. The vine-growers represented the leaders of the Jews, and often most of the people too, who rejected the slaves, the Old Testament prophets, and who would shortly crucify the Son. These servants of God threw away the Word of God. They killed the Son of their Master. Now, they say there is no Son, and everything belongs to them. The

Bible tells us that because of their rejection everything is now for us!

The Jews, the original builders, threw away the most important stone. As leaders they had a great responsibility, but they rejected the Word of God. God particularly communicated His laws to Israel, thus distinguishing her from all other nations, "He has not dealt thus with any nation; And as for His ordinances, they have not known them" (Ps. 147:20). He specially loved and cared for the Israelites. He expressly loves you, but you still throw away the most important stone in your life by ignoring, pushing aside, and discarding His Word over your way. Even though the highest priests, Pharisees, and scribes killed Jesus on the cross at Calvary, God still made Him the cornerstone. God made Him the Messiah. The real sad thing is, "He came to His own, and those who were His own did not receive Him" (Jn. 1:11). Isn't this true? How does it apply to you? When your mind is on more important things and you don't read your Bible, are you rejecting Him? Jesus has victory at the cross, even though the Israelites rejected the Messiah, He became the Messiah.

"Therefore I say to you, the kingdom of God will be taken away from you and given to a nation producing the fruit of it" (v. 43). When you reject the Son, you lose big time! Other people will receive the awesome blessings you have refused. This is God's eyes! He's saying that He leaves it up to you to live with His Word or not. It's your choice. You can't have it both ways. You either live for money or your live for His Word. God wants your spirit to be fruitful. "Do homage to the Son, that He not become angry, and you perish in the way, For His wrath may soon be kindled. How blessed are all who take refuge in Him (Ps. 2:12)! Amen! Love Jesus, not the things of this world. If you do things your own way, you will die in that way. Do you realize how much God

truly loves you? Do you fully understand the depth of His love for you through Jesus Christ? Submit to God, kiss His Son, not the things of this world.

If you live with His Word your heart will have peace. "Rejoice and be glad, for your reward in heaven is great; for in the same way they persecuted the prophets who were before you" (Mt. 5:12). Why worry about worldly things when heavenly blessings are upon you? Yes, this earthly life will be difficult as a Christian but don't dismay! This life is temporary, short lived. Heaven is your eternal home. Heaven is your destination! Live for heaven and your soul will be forever delighted. You will be totally gratified in your daily living!

"Therefore thus says the Lord God, 'Behold, I am laying in Zion a stone, a tested stone, A costly cornerstone for the foundation, firmly placed. He who believes in it will not be disturbed' (Is. 28:16). Do you understand? Jesus is the stone which was rejected by the Israelites, the builders, but which became the chief corner stone (see Acts 4:11). God laid the stone, "Behold, I lay in Zion a stone of stumbling and a rock of offense, And he who believes in Him will not be disappointed" (Rom. 9:33). I hope your dwelling is built with the only cornerstone that upholds God. In the figure of the church as a temple, Christ is the corner stone, the apostles and New Testament prophets are the foundation, and each Christian is a stone in the building, "having been built on the foundation of the apostles and prophets, Christ Jesus Himself being the corner stone" (Eph. 2:20). Amen! Christ is the cornerstone, not money, not anything else! He is a "stone of stumbling and a rock of offense" to unbelievers.

My dear friends, this church has to relate with Jesus Christ. We have to proclaim His amazing resurrection, ascension, and the sending of His Holy Spirit. We have to glorify God in

Christ Jesus! We have to live with the Holy Spirit in our heart instead of the lust for money, power, and reputation. We need to be rich and powerful with Jesus in our hearts. We have to be humble, not showing how hard we work or how much we get paid. You can't calculate your riches. The real calculation is what kind of life you live with your pure faith. Be fruitful!

There are a lot of spiritual leaders who confess that they believe in God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They can recite the words to the Apostles Creed, but are they really responsible with their faith in His Word? How fruitful are they? Do their words and behaviors really reflect God's actions? Too many church leaders and church members throw away God's Word, His stone. It's so sad. How often do we throw away the precious stone from our daily lives, and calculate over money, popularity, and material enjoyment? Let's pray, "Oh Lord, forgive me. Let my life be filled with your Holy Spirit. Help me to die on the cross and become alive with Your hurting hands. Let Your hand touch me and make me as your instrument. Let me bear fruit, the Holy Spirit's fruit. I can't do it myself Lord, only you are willing and able. I believe in Your power. Please control my whole life, my will, my destiny. Everything is Yours Lord. Let me have peace, even though I may have no money—no food, shelter, or clothing, let me have You. Let me have the enjoyment that comes from knowing You and crucifying all my eager desires.

There's only one way to produce godly fruit and that comes through your faith in Jesus Christ. You need the Word of God more than you need anything else in this life. You need it to live! Earthly food only sustains the body but heavenly food sustains your soul. Eat heavenly food so you can be fruitful and your eyes can marvel at how spectacular God's cornerstone is in your life. ■



김성록 목사

열매 맺는 백성

(마21:42-4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전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가장 중요한 것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성전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42절). 예수께서는 신의 위가 높은 종교적인 관리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버리고 다는 것을 더 진중했다는 것을 지적하시며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혹시 육체적인 이리저는 생각을 움켜잡으려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눈에는 정말로 놀라운 것으로 비추어지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는 사람들

예수께서는 시편 118:22-23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인용하셨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와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마로다”. 이 말씀이 정말일까요? 여러분은 이 사를 믿으십니까? 하지만 믿는 자를 가만히 앉아서 많은 이들이 예수께서 강한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돌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던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예수는 오늘의 메시지를 어떤 땅 주인과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로 말씀 주십니다. 땅 주인이 어떤 포도원 농부들(주인의 욕을 저버릴기를 거절하는)에게 그의 소유자를 빌려주게 되었고요, 그 농부들은 소산물을 받아오도록 보배 많은 두 그루의 종들을 계속적으로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러자 이 빈에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너희 내 아들은 공경하라 하라”(37절). 그러나 불행하게도 농부들은 그의 아들을 자기 죽였습니다. 그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구약의 선지자들을)을 거부하고 아들을 뜻밖은 유대의 지도자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농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인인 아들을 죽이고 난 후, 아들이 없었기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은 자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떠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이렇게 거부한 이유가 그들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린 유대인들

최초의 건축자들인 유대인은 가장 중요한 돌을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로서 막대한 책임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신의 율법을 모든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별되게 이스라엘에게 자세히 전달하셨습니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들은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렘루아”(시147:20).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돌보셨습니다. 인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불멸의 사랑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돌을 멀리 던져 버렸습니다. 결국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를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가 참된 메시아임을 확인시켰습니다. 정말 슬픈 것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도다”(요11:18)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가 가장 중요한 분이 되지 않지 않게 성경을 읽지 말고, 그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선택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을 너희가 받으리라”(43절). 여러분이 아들을 거절할 때는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절한 놀라운 축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될 때까지 멀리 계시지만, 이 먼 말씀과 돌들이 살아있으므로 계속 여러분에게서 기다려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가 다 사실은 없습니다. 그를 위해 살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던가,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들에게 임할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당하시라 그 진노가 금습시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21:1) 아멘! 이 세대의 모든 아들,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만일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길로 행한다면, 그것은 말방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임맞추시길 바랍니다.

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면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께박하였느니라”(마5:12). 하늘의 축복이 믿는 자들에게 마를 때,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 열려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려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에서의 삶은 일시적이고, 잠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늘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집입니다. 하늘은 여러분들의 참된 목지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 전적인 만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는 모퉁이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쌓았노니 곧 시편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결하게 되지 아니하리라”(사28:16). 여러분은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건축자들의 해 버린 돌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창4:11). 하나님은 돌을 보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고 갈보리”(롬9:33). 소망하는 자는 여러분들의 주지기를 하나님께서 놓으신 유일한 모퉁이돌에 건축하길 바랍니다. 성전으로서, 교회의 형태에서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며, 사도와 선지자들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건물에 있는 하나의 돌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뒤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엡2:20). 아멘! 그리스도는 돌이 아니며, 그 어떤 다른 돌이 아니며, 오직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부딪히는 돌이며, 거치는 반석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들과의 놀라운 부활, 승천, 그리고 그가 거룩한 성령을 보내심을 선언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말씀을 영화롭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돈과 권력과 명성에 대한 강한 욕망을 대신하여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다. 우리의 마음엔 예수로 말미암은 부요함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하며, 자신의 공포나 수고를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부유함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참된 가치는 순수한 믿음으로 살게 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풍성히 열매를 맺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고백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을 믿는 것을 고백하는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책임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열매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지도자들과 교회의 회원들이 그의 모퉁이 돌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던져버립니다.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매순간 열매나 자주 귀중한 돌을 멀리 던지며, 돈과 인기 그리고 물질적인 기쁨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십시오. 나의 삶을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채우소서. 십자가 위에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도록, 주님의 상서 찬 손길로 나를 도우소서. 주의 자비로써 손길로 나를 만지시고 주의 도구로 만들어 주소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를 열매하라! 내가 스스로 맺을 수 없사오면, 오직 주께서 행하시게 하소서 하실 수 있나니. 내게 주와 능력이 되고요, 나의 모든 생애와 뜻과 내 마음을 주 경이하여 주시며, 모든 것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비록 유혹과 실과와 옷과 같이 여러분의 재물은 없사오나, 평안을 주시고 나를 주의 소유로 삼으소서. 주님을 깨달음으로 인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못박으소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될 경건한 열매를 맺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다른 어떤 것들 필요요는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더라도 믿음의 유익은 단지 몸을 유지시켜 줄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양식은 여러분의 영혼을 건고게 해 줍니다. 하늘의 양식을 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의 모퉁이돌이 여러분 인생에 담겨있음을 목격함으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

하나님의 숨결을 느낀 성지순례



서 동 석 (장로, 당회부서기)

몇 년 전 왕십리교회 당회장이 저를 당회장실로 불러 "서장교가 신학교에 근무하기 때문에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신학생들을 할 수만 있으면 젊었을때에 성지를 순례하고 오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 칠십이 넘어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생각해보니 그동안 너무나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친 부분이 많아 후회마구 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기 그지없다 하면서 성지순례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셨다. 그러나 그동안 성지순례의 기회를 보았지만 그리 임지를 아니하였는데 교회의 특별한 배려로 장로부부들에게 성지를 순례하도록 한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라 생각하고 모든 일들을 접어두고 성지순례에 동참하였다. 금년 실시한 성지순례는 성경교육 기록된 성지의 역사적인 배경과 지리적 특징과 하나님의 섭리를 직접 보고 듣고 배우는 성경의 지식을 쉽게 다득하고 이해케 한다는 목적이 분명하므로 장로로서 현장을 직접 보고 와서 성도들 앞에서 확인되는 보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을 하였다. 9월25일부터 10월5일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지를 무사히 순례하게 된 것을 먼저 하남교회 감사를 드리며 또 온 성도들에게 감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집트 카이로 소재 모세의 기념교회를 비롯하여 무려 60여명이 넘는 성지를 순례하는 동안 성경에서 알린 지식과 생계의 현장을 확인하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현실감과 현장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고 현상이 너무 가깝게 다

가와 손에 쥐고 보는 듯하여 이해의 폭을 한껏 넓혀 주었다. 특히 모세가 출애굽 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이나 광야 길을 갔던 현장을 달리면서 작열하는 태양의 열기와 황량한 죽음의 벌판과 메달라 버려진 땅을 보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과 불평이 왜 있었으며 모세의 고통이 어떠했는가를 충분히 이해하기에 족하였다. 광야라고 하는 불모지 사막에 잠시잠시 내려 살펴본 땅은 저주받은 땅 그대로였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임에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음을 실감하였다. 시내산에 올라 에베를 드리며 해돋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이곳에서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곳이라 생각하니 천지가 돌산처럼 단단하게 느껴지며 하나님의 우성이 금방이라도 들리는 듯 하였다. 이집트 피라미드와 �핑크스상을 보면서 미려한 왕들이 이러한 무모한 것으로 국력을 낭비하여 가난이 지금까지도 따라다니는 것을 부한할 수 없으며 나무라져 있는 자원을 이용할 줄 모르는 그들의 무지가 더욱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하였다. 이스라엘의 성지 에루살렘에 도착하여 감람산에 이르니 총리가 요란하다. 그러나 성지를 순례하는 순례객들을 동요하는 기색없이 일정에 따라서 순례를 계속 할 수 있었다. 우리도 예수님의 승천교회, 루지다문교회, 예수님의 눈물교회, 기도촌 광야이, 풍곡의 벽들을 순례하였고 특히 에루살렘 감람교회에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

신 골고다의 길을 따라 찬송을 부르고 올라갈 때 두꺼비 성당에서 동참하는 심령이 되어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시온산 마가의 다락방에 이르러 당시 성령이 임하여 기도해 힘쓰신 무리들을 생각하며 우리들도 기도하였고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때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잘못을 통곡한 통곡교회에서는 당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통회자복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는 듯 하여 우리들의 가슴을 숙연하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예수님 탄생성지교회를 돌아보면서 2000여년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과 그를 경배하였던 동방박사들을 생각하면서 말귀에 누우셨던 예수님의 제자를 느낄 수 있었다. 현지인들에게 축적되어온 여러교 입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입성하여 시립산에 올랐고 요단강 세레타와 베드로의 수위관교, 오병이기에 기적 기념교회, 가버나움 등을 순례하였다. 산상수훈을 가르친 팔복교회에서 주일에매를 드셨으며 예수님께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신 갈릴리온서, 위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경하였다. 가이사랴 빌립보로 돌아와 단애에 이르렀을때는 헬산에서 열음이 녹아 내리는 시원한 요단강의 근원에 발을 담

그며 요단강을 생각하게 하였다. 이타리아 로마에 이르러 베드로 성당과 그 광장을 보면서 또 한번 놀랐고 세계4대 박물관 중의 하나인 바티칸 궁내의 박물관에 2500년이 넘는 유물과 조각그림들을 보면서 깊은 뜻을 되새기게 하였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을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는 동안 그림속으로 들어가는 듯하였고 대적임을 느끼기도 하였다. 특히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참수터교에 와서 꼭 팔려 세번 티기까지 하였다는 현장을 보면서 바울의 목이 울려 졌다는 돌발현대를 보는 순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어 한동안 고개를 틀 수 없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이 팔려 나갔고 거꾸로 십자가를 지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300만환만 지하 땅굴 카타콤 속에서 생애한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적 현장을 방문하는 곳마다 감격과 은혜를 체험하였다. 이번 장로부부 성지순례가 교회의 비범한 기회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한곳이라도 더 보고 배우고 익히어 하삼다는 집안이 우리 모두에게 기득하였으며 힘들고 어려운 순례의 길을 완주하게 되었다. 이번 성지순례를 통하여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을 하였으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재확인할 수 있었던 유익된 순례의 길이었음을 감사드리는 바이다.

선교지에 성탄 선물 보내기

선교위원회에서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각 선교지에 성탄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선교사역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격려하며 위로하고자 성탄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성탄선물을 모집하고 있으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모집 기간: 10월1일~10월31일
2. 감동품물: 1) 편지, 고무장, 라면 등의 식료품 2) 의류 및 신발류(사이즈는 선교위원회 문의) 3) 물품 선택 및 구입이 어려울 경우 선교사가 필요한 물품을 직접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현금, 4) 변질 또는 파손될 위험이 있거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품은 제한합니다.
3. 문의: 선교위원회

전국 총현교회를 다녀와서



12교구는 농어촌 지원교회로 강원도 동해시 동성교회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전국 총현교회로 정했다. 동성교회는 지난 7월에 다녀왔고 전곡총현교회에는 그동안 지도교역자로 공직이라서 3번이나 연기해오다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1박2일동안 영국군 목사님 인술아래 14명의 전도대원들이 전도활동을 하고 왔다. 전국 총현교회는 원래 군인교회로 자리잡고 설립되었다가 군부대가 이전함에 따라 총현교회에서 부대내에 군인교회를 지어주고 그 교회를 인수받아 1997년 4월에 총현교회로 교회로 설립하였다. 경기도 연천지역은 수북지구로 중부전선과 가깝고 경기도 광복마다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군사보호지역이며 한탄강을 끼고 있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신사유적지가 있는 유원지이다. 감리교를 주축으로 한 각 교파의 교회가 조그마한 전곡읍을 중심으로 20여개나 난립하여 다투어지며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전국 총현교회는 그동안 육수목 목사님의 기도회와 세밀한 전도전력으로 4년동안에 강원 80여명 학생 100여명의 성도들로 부흥 발전시켰으며 어떤 주일이든 인군들만 100여명이 넘게 찾아와 예배를 드리는 때도 있다고 한다. 우리 전도대원들은 기도로 무장하고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회회를 출발하여의 정무에서 아침식사를 했다. 11시경에 교회에 도착하여 개회예배를 드리고 전도지와 선물을 준비하여 놓고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현지 교인들과 연합하여 축회전도와 노방전도를 실시하였다. 대부분 영세 주민들

이라 맞닿기를 나가서 집과 아파트는 비어 있는 곳이 많았다.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면 누르면 어디서 왔는지를 꼬치꼬치 캐묻고 날치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혹시 무슨 일을 당하지 모른다는 의욕적으로 가져다 있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전했다. 두시간 동안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이마에는 땀이 송구성으로 다리는 아프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더욱더 열정을 사라는 불타는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뜨겁게 전도했다. 해가 질 무렵이 되니까 일터에 갔던 주민들도 돌아오고 학교에 갔던 학생들도 학교까지 시작했다. 우리 대원들은 바빠졌다. 학교전도마다 아파트 입주마다 지키고 서서 열심히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애민자고 간곡히 설득하였다. 저녁에는 본교의 교인들과 전도대원들의 전도를 받고 참석한 주민들 50여명이 모여 뜨거워 찬송과 기도를 하고 영국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이튿날은 5일장사하는 날이라 이제 뜻대한 축회전도를 끝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사장으로 나가 어깨를 두르고 전도를 하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전하고 전국 총현교회를 알리며 복음을 전하였다. 1박2일은 너무 시간의 짧아 아쉬운 감이 있었으나 우리 전도대원들은 한영혼이 전하보다 귀족하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돌아왔다.

(백철구 안수신사)

QTL나눔

이별의 화살

황 태웅 (청년1부)

하나님은 오늘로부터 다했고 요나단을 각자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하루하루 요나단의 마음을 보며 다했이 외로운 중에도 곁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요나단의 조건없는 사랑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하게 합니다. 요나단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했에게는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위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이 있었을 뿐인데 요나단은 다했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여 아버지 사울왕이 그를 죽이기로 결심하였을 때 금식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열등으로는 기도가 왕이 되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했에게 주셨음을 잘 분별하여 선을 넘지 않습니다. 날마다의 전쟁과 같은 삶에서 예수님도 나에게 요나단과 같은 벗이 되어 주심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중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를 향한 믿음과 담대함의 결단이 있다면, 그분은 이것만으로도 나보다 내 생명을 사랑하여 주시며 상심하기 쉬운 나를 위해 기도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죽음의 길에서 요나단을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 다했보다 그 생명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기에 다했은 사랑의 골짜기를 외롭지 않게 곁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부둥게 안고 울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격려합니다. 자신을 지려고 창을 들던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생활도, 죽음의 칼을 피하여 마음돌고 없이 도망치는 생활도 모두 힘든 연단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기에 순종함으로 떠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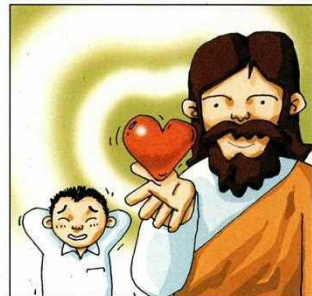
위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 다음주면 나에게도 헤어져야 할 분들을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두성 선생님, 수진, 명진, 지영, 조장동, 은경신배, 은영, 복남, 시은, 종철, 제철, 돈우... 8개월간의 시간을 헛되게 하고 헤어짐에 내가 부둥게 안고 울 수 없는 것은 내 생명처럼 이분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제게 밀려 옵니다. 아아 다른 사람이 항상 요나단이 되어주길 원하는 제 측은 마음을 때문인지 같습니다. 조장동을 섬겨야 하는 자리를 주셨지만 줄곧 다했의 자리에서 서 있었던 제자신의 모습이었습니.

하나님, 참 부족한 저를 용서하시고 제 마음을 넓혀 주사 요나단의 마음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다했이 생명의 은인인 요나단에게 크게 세 번 절을 한 것처럼 저에게도 감사드리야 할 분들을 주셨습니까.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항상 기쁨을 주셨던 저희들의 젊은 오빠(제가 둘이지만) 두성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꼼꼼하게 잘 챙겨주신 수진님, 결혼의 큰 산을 넘으면서도 성실히 자리를 지켜준 명진이, 갈수록 조원들이 의기 투합하여 헤어지기 쉬운하더라던 지영이... 모두 힘든 시기에 같이 걸어 주심 감사합니다. 요나단의 말처럼 다음의 연단 장소로 평안히 가시길 기도하며, 우리에게 창을 들고 치러는 사람이 있는 성으로 인도하시든지, 마음돌고 없는 광야로 인도하시든지, 다했을 사랑하는 요나단의 마음, 조건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순간일수록 저희에게 요나단을 예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만평

글·그림 / 정민(minj74@jaangminn.com)

사람은 자기의 더 큰 죄는 생각지 않고
다른 이의 죄를 정죄하고 깎아내리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조차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며 용기를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우리

한 철 (청년1부)



우리는 건대부고 동창으로 만난 우정 깊은 사이입니다. 벌써 15년을 함께한 사이라 서로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힘이 되기도 하지만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97년 함께 누질랜드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서 서로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지금 돌이켜 보아도 그때만큼 행복한 시절이 없었다고 얘기나 할 정도로 첫사랑의 기쁨을 함께 느끼며 지낸 너무나도 절친한 사이입니다. 새벽기도와 거의 매일을 교회 봉사와 예배로 그리고 말씀공부보 보내면서 성령충만함과 말씀에서 지냈던 시간이었기에 이 세상 누구보다 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단점이 서로를 괴롭히기 시작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서로 애를 알리게 되더니 금기하는 말들을 하기도 하고 불신마저 생겨나 따로 있기를 바라기까지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으며 심지어는 함께 있는 것이 은혜가 된다면 떨어져 있기를 기도했었습니다.

부처씨에게도 비슷한 우리의 어긋남은 어지러운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의 주위에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누641-42절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회개시키셨는데 "이제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깨닫지 못하느니라."

결국 서로 회개를 하며 다시 지난 날의 우정을 회복하였는데 지난 날보다 더욱 깊은 우정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의 어리석음을 되돌이하고 있는 지체들을 보게되고 안타까움으로 기도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다름과 비방 속에 회개의 영을 심어 주시고 누구의 잘못도 따지지 전에 먼저 자신이 회개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게 하소서 하고나면 지체들이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써 주의 열심이 있게 하소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참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사랑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P.S. 이글은 한철 형제가 오랜 친구 강봉구 형제에게 전도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쓴 글입니다. 두 형제는 현재 청년1부 신부에서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신 현형 (청년1부)



요즘은 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멀리 계신다라는 느낌이 자주 들곤 하였다. 이렇게 안개 속을 걷고 있는 듯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작 무언 말쯤으로 나를 일깨워 주셨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더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 너무나도 교만했던 내가 부끄러웠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역대하 7:14). 왜 내마음이 말씀으로 주셨는지 깨닫는 순간 요즘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셨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죄를 싫어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때문에 죄를 자백하고 삼 속에서 나를 내려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삶을 돌아보면서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임용고사'라는 핑계를 대며 주님께 합격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주님을 찾지 않는 시간들을 합리화시키고 있었다. 하나님은 '합격'이라는 것으로 영광 받으시어 하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신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 초라하게 만들어 버렸다. 부끄러웠다.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꼭 무언가를 받으셔야만 영광스러워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이젠 더 이상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드리기 위해서라고 핑계대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나중'에 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힘써야겠다. 시험이 중요하고 공부해야 함은 사실이지만 주님께 나의 비전 때문임을 다시한번 명확히 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 결과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기도해야겠다. 공부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3교구 영동 2구역

금메달 신앙



난히 뜨거워 구역을이었다. 서로간의 믿음이 특별했다. 모이기를 기뻐하고 헤어지기를 아쉬워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영동 2구역에는 2명의 큰 병을 앓는 환자가 있었다. 전진현 집사님과 최순원 권찰님이 그 분들인데 각각 자궁과 난소에 혹을 갖고 있었다. 병원에선 암으로 발견하고 있다며 수술할 것을 권고했고 수술 날짜까지 잡아왔다. 그들은 두려웠고 구역원들에게 의지했다. 구역원들은 두명의 환자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했다. 모일 때마다 열심을 아끼지 않았다. 각각 환부에 손을 얹고 뜨겁게 기도했고 그 강한 기도가 치유 되리라는 믿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말로 믿음대로 되리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두 나았다. 병원에서도 놀랐다. 이런

환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 금메달 신앙을 위해선 가정이 바로 서야 한다며 특히 아내들이 바로 서야 한다고 가르쳤다. 아내가 서면 남편들이 설 것이고 남편이 서면 가족이 설 것이라는 결론이었다.

기도제목을 물었더니 구역원 전체가 하나같이 우리 교회가 구역 예배에 충실한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은혜로운 기도 제목을 내어 놓았다. 가장 연가 많으신 유영자 권사님이 구역장이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그 기도만으로도 축복이라고 말씀하자 구역장님께서 충원교회 구역장들은 없으나 사나 기도한다고 했다. 같이 은혜받고 싶는데 구역원들은 그걸 모른다고 구역에 배 나오지 않는 구역원들을 안타까워 했다.

(권영설 기자)

구역예배의 은혜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저는 제3교구 영동2구역에서 8년째 권찰직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구역은 크고 작은 시험이 많아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

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

길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구역석구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실족해 있던 자가 다시 믿음을 되찾아 열심으로 모이기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구역예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한 집사님이 자궁에 있는 혹으로 급히 서둘러야 했던 수술을 하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구역식구들의 기도를 들으사 4개월만에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역식구들은 이 작은 모임에 함께 하사 사랑과 치유의 손길을 펴시는 하나님께 다독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구역식구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되어 서로 친교함으로 남의 허물과 어려움을 사랑과 믿음으로 덮으면서 내 가족처럼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 합니다. 구역예배는 낙심하고 시험엔 자에게 화망과 용기를 줄 수 있으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영동2구역 식구들은 낮아진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조화를 이루는 구역이 되기 위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최순원 권찰)

나혼자 전국같은 집요미

주님의 거룩한 교정전도의 사역자에게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맺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요엘2:13).

할레루야! 주님의 품안에서 항상 은유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다운 섬을 위하여 주님의 명예를 내고 있는 집사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동안 별고 없으시지요. 하나님의 사명에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늘 기도드립니다. 진작에 연락드려야 하리니 인줄 알면서도 이렇게 늦었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신지요. 지난 며칠 동안 전국적으로 내린 폭우에 주변에는 피해가 없으신지요. 저는 멀리해주신 기도해주신 덕분에 다시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이곳 교회당에서 성경암송 대회가 있었습니다. 야코브서 1장부터 5장까지 전장을 암송합니다. 저는 전장 암송준비가 끝났습니다. 이곳에 다시 오실 때에 꼭 앞에서 암송하겠습니다.

지난 8월15일 광복절에 감행을 받았습니니다. 무기에다가 20년으로 감행받았습니니다. 이곳에서 많은 대상자중에서 저

혼자 감행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알고 더욱 믿음으로 폭파져 보렵니다. 집사님! 이곳에서 때론 외로움과 괴로움을 느낄때가 너무나 많습니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 이들이 많이 생각날때면 기도합니다. "주님 가난과 고통도 나에게 주신 축복인 줄 알게 하소서. 가난이 반드시 불행한 것이 고 부한것이 축복만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근심과 격정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거 놓고 주님의 의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집사님! 주님의 거룩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 더욱 건전하시고 평안속에 사 감사와 기쁨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집사님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만나 뵈움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편지에서 ○○○드립니다.

이 편지는 전주교도소에서 총현교회 교정전도회에 보내 편지입니다. 총현의 성도님들께 교정전도회 사역팀을 위해 많은 기도부탁드립니다.

+ 양오실

성도님들의 기도로 환자들의 쾌유소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진정어진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7교구에 특별한 기도가 있어 먼저 부락 드립니다. 정태희(78세) 고가이(70세)성도의 아들, **장병음 성도(42)**가 급성 골수 백혈병으로 중앙병원 신관 74 병동 33호에 입원해 있습니다. 혈액중서가 급히 필요함니다. 혈액중서를 기증하고 싶으신 분은 401-1127로 연락 주시기나 지난 충원현(선교관 4층), 교역사실(선교관 2층)로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도와 도움 부탁드립니다.

1교구 **양미화 성도(35)**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수술했는데 뼈조각이 일부 없는 상태입니다. 제수술까지 가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카톨릭 정형외과 306호에 입원해 있습니다.(집:501-6218)

5교구 **고길중성도** 장암으로 강남병원 318호에 입원해 있습니다. 7교구 **석화옥 성도** 척추가 부러져서 강동 성심 병원 1010호에 입원해 있습니다.

8교구 **박하순 집사님** 입암선 암으로 경기도 평택에 있습니다. 위독한 상태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연순 성도**는 팔이 기계에 물려서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여러차례 수술을 요합니다. 기도 바랍니다.

11교구 **아아연 집사님**이 위암으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 후 치료 중입니다. 은혜중에 수술하여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간의 성도님들 기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15교구 **송지호 집사님(885-5511)** 폐암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함양 부여에 송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성배 성도**는 박막염으로 영동세브란스 병원 신관 3동 752호에 입원해 있습니다. 교통사고 시절 낙마였어 있었는데 비슷한 증상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거들날 수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전국 학교



일시: 2000년 10월 28일(토) 오후 3시~7시

장소: 봉사관 지하 2층

아름다운 밤! 시와 찬양의 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번 10월 28일에 우리 중등부에서 '시와 찬양의 밤'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시와 찬양의 밤'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와 찬양으로 아름다운 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해마다 준비하여 열리는 행사지만 이번에는 정말 중등부가 하나가 되어 아주 멋진 밤을 꾸밀 것을 생각해보니 기쁩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런 인도하심으로 와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각 가정에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생명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늦은 시간 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또다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고 귀한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을 하는 밤이 되기를 위해 중등부는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총원 교회의 모든 부모님! 이번 '시와 찬양의 밤'을 기회로 각 가정에 중화하시어 오오오오 복 중등부 보내주세요.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중등2부 이혜원)

깊어가는 가을에 중등 1, 2, 3부 학생들이 '시찬밤'이란 이름으로 모입니다. '시찬밤'이란 '시와 찬양의 밤'의 약어입니다. 중등부 학생들의 신앙고백이 담긴 시와 찬양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입니다. 또한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눔으로 서로가 주 안에서 교제하며 이 은혜와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주에게 주신 온사와 제능을 따라 사냥송과 기악연주와 독창, 중창, 합창과 worship과 뮤직비디오 등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사냥송은 중등 1, 2, 3부에서 백일장 에세이를 통해서 당선된 작품을 행사 당일 낭독할 것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중등 1부 작품이 제일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worship은 중등 3부 찬양팀이 중심이 되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대되는 것은 뮤직비디오 팀인데 중등 2부 학생들이 심원을 가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악연주와 독창, 중창은 부서 구별 없이 자유롭게 출전하였으며 합창은 중등 1, 2, 3부의 기존 찬양대가 연합찬양대를 구성하여 찬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등부 학생들이 10월 1일부터 매주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찬밤' 행사는 10월 28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진행됩니다. 1부는 예배이며 2부는 '시찬밤' 발표회입니다. 그리고 3부는 식사 교제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중등3부 이길찬 전도사)

중등 1부 시절에 '시찬밤'을 처음 경험하였다. 그때는 선배 형, 누나들을 열심히 따라하느라 '시찬밤'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중등 3부 학생이 되었고 조금 있으면 고등부로 진급하는 시기에 중등 3부 시절의 마지막 큰 행사인 '시찬밤'을 준비하니까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하지만 또 다시 '시찬밤'이란 행사를 통해서 나와 친구들과 후배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서로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니 참 기분이 좋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 감사할 뿐이다.

그래서 '시찬밤' 행사를 2주 앞두고 있는 요즘 열심히 찬양 연습을 하고 있다. 주일 분반공부 시간이 끝나면 많은 친구들이 곧장 집으로 가지만 중등 1, 2, 3부 연합 찬양팀은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찬양 연습을 한다고 바쁘다. 그동안 각 부서에서 따로 찬양하였지만 중등부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였다. 아작은 어색함과 생소함이 있지만 열심히 찬양 연습하는 가운데 서로가 가까워지고 있다.

'시찬밤'을 준비하는 동안 이번 '시찬밤'은 예전의 것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백일장에 당선되어 사냥송을 하거나 기악연주, 독창, 중창, 합창을 직접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중등 1, 2, 3부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학교 친구들에게도 많이 소개하여 이들이 교회에 쉽게 나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또한 선배와 후배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만남이 있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일년의 연례행사로서의 내용이 아니라 중등 1, 2, 3부의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만의 시찬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시찬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주시기를 바라다...

(중등3부 최웅)

중등부 기자단 소개

주일 오전 11시가 조금 안된 시간, 제2교육관 5층에 위치한 중등 1, 2, 3부 연합 기자단실로 20여명의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각 부서별로 나눠서 위치한 전용 테이블에 시 소그를 모임을 갖는 이들은 요즘 '시와 찬양의 밤(이하 시찬밤)' 행사의 일부본인 시화전 준비로 분주했다. 지도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하는 아이들의 눈 속에선 사뭇 진지함을 느낄 수 있었다.

중등부 소그를 중에서 오랜 전통을 지닌 기자단의 주된 사역은, 분기에 한 번 발간되는 회지 '실로모' 제작, 기획에서부터 기사작성, 편집까지 모두 중등부 기자들에게 시 소그를 모임을 갖는 이들은 요즘 '시와 찬양의 밤(이하 시찬밤)' 행사의 일부본인 시화전 준비로 분주했다. 지도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하는 아이들의 눈 속에선 사뭇 진지함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재 진행중인 시화전의 경우 기자단의 가장 큰 연중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행사를 위해 중등 1, 2, 3부는 지난9월 24일 각 부서별로 '시와 찬양', '실자' 등의 시제를 가지고 백일장을 실시했다. 오는 28일 시찬밤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각 한 편과 입선 열 편을 선정해서 시상할 예정이다.

특히 출품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이날 3시부터 복지관 1층부터 지하2층까지의 계단 벽면을 총 43원의 시와 그림이 있는 판넬로 장식할 계획이어서 중원 청소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이 시화전은 29일 경조소 제2교육관 4층과 5층으로 이튿날 계속 전시된다.

'아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 감사하다'고 김달영 선생(중3지도)은 소그를 '기자단'을 평했다. 또한 유영진 선생(중1지도)은 그달란트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배우고 있다'고 말한다.

한편 '기자단에서 열심히 만드는 것에 비해서 아이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주영태 선생(중2지도)의 지적과 아울러 '낭만발성시이' 낙후되고 협소한 장소'의 문제는 소리 없이 수고하는 작은 봉사자들에게도 우리들의 관심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편집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언뜻 스쳐가는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주일 오후, 한시간 남짓되는 청년2부의 성경공부시간. 70년

생 동갑내기들은 그들끼리 세 개의 조를 이루어 말씀을 배우고 서로의 삶과 신앙에 대하여 나누곤 한다.

언제부터인가 이 작은 모임에 빠지기 시작했다. 나는 봉사를 하니까, 봉사로 바쁘니까, 또 이 만큼 바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굳이 모여 성경공부를 하거나 꼭 친구들을 만나서 마음을 주고 받거나 할 필요가 없을 것같은 생각에 이르렀다.

그리기를 할 때, 어쩌면 언젠가 성경공부를 하려고, 친구들을 만나려고 허겁지겁 5층까지 뛰어 오르곤 하던 그때보다도 더 지치는 주일들이 계속되었다.

왜 그런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러다 주일 날 내게 달려진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았다. 친구들과 함께 했던 그 짧은 성경공부시간들이 떠올랐다.

친구들이 던지는 믿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세워주고 용기 주고, 또 그들의 삶에 대한 작은 간증들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게 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가진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흔차지도 잘 할 수 있으리란 교만과 분주함에 마음을 빼앗겨 있고 있었던 것이다.

"천이 천을 날카롭게 하는 것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잠언 27:17)"

70년생 동기 모임의 주제 성경구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서로의 삶을 통해 가르치며 배우고, 또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 군사를임을 확인시켜 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을 보이는 친구들.

એ즈음 주일이면 그는 예보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5층을 오른다. 어김없이 빠른 미소로 나를 반기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 그 곳으로.

또 5부에서 후반 교회 계단 언저리에서 서로를 찾아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는 젊은이들, 나의 친구들이 보인다. 그들과 이야기 나눌 시간은 없지만 부서는 가을 햇살을 잔뜩 머금은 친구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말하듯 하는 것은 때를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며, 가장 뜻깊고 행복한 순간이 되었다. 내게 그리스도의 군사원 든든한 친구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편집실)

친구

대기 조건		
구분	시 간	장 소
주말 예제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본당 다문 화이우동우체국
	IV 오후 1:00(다문우체국)	본 당
	V 오후 3:00	본 당
English Service	9:00 a.m.	강원교회(Gale)
현 장 예	오후 5:00	본 당
수 조 예	1:00 ~ 11:00 (오후 7:00)	본 당
조 조 예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후 5:00	본 당